

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6월 27일(금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미 국채가격, 지표 부진에 상승
- 2) 미 1/4분기 GDP 성장률 하락
- 3) 미 6월 중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82.5, 전망상회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세계은행, 3천만 달러 규모 첫 '갯본드' 발행
- 2) 일본, 유효구인배율 22년래 최고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고프로, 나스닥 상장 첫날 30% 폭등
- 2) GM, 다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쉐보레 크루즈 판매중단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미 국채가격, 지표 부진에 상승

- 지난 26일 미 국채가격은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 상승
 -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날대비 3.2bp 하락한 2.530%를 기록, 이는 지난 5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결과
 - 3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전날대비 2.5bp 하락한 3.355%를 기록, 5년 만기 국채수익률 역시 전 거래일대비 3.5bp 하락한 1.650%를 기록
- 전문가들은 소비와 고용지표가 부진을 보이고, 분기 말을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국채가격 상승(국채수익률 하락)을 이끌었다고 지적
- 한편, 미 재무부는 이날 290억달러 규모의 7년 만기 국채를 입찰, 입찰 결과 낙찰금리는 2.152%로 마감

2) 미 1/4분기 GDP성장률 하락

- 지난 25일 미 상무부는 미국의 1/4분기 GDP 성장률이 수정치(-0.1%)에 크게 미달하는 연율기준 마이너스(-)2.9%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1/4분기 성장률은 당초 잠정치인 '0.1%' 플러스 성장에서 4월 '-0.1%'로 하락한 뒤 이날 확정치에서는 '-2.9%'로 하락
 - 이 같은 하락폭은 -5.4%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1/4분기 이후 가장 큰 수치이며 동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1년(-1.3%) 이후 최초

-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 중서부의 폭한과 더불어 의료 지출이 수정치 집계 당시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

3) 미 6월 중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82.5, 전망상회

- 지난 27일 톰슨-로이터/미시간대는 6월 중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가 82.5를 기록했다고 발표, 이는 5월 중 확정치 기록인 81.9를 상회하는 결과
-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1/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난 겨울 폭한 때문이라고 믿고 있으며, 이번 결과는 미국 경제가 이미 경제 성장세의 긍정적인 영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생각이라고 분석
- 한편, 미래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전월 73.7에서 금월 73.5로 하락했지만, 시장 예상치 72.8은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세계은행, 3천만 달러 규모 첫 ‘캐본드’ 발행

- 지난 26일 FT는 세계은행이 3천만 달러 규모의 첫 대재해채권(Catastrophe Bond), 일명 캐본드 발행에 나섰다고 보도
- 세계은행의 신용등급은 'AAA' 이지만, 캐본드의 경우 카리브해 지역 재해 발생 시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'AAA'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
- FT는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WB가 캐본드를 발행한 것은 자연재해가 경제 취약국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을 시사 한다고 설명

- 한편, 전문가들은 현재 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캐본드 시장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2018년 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

2) 일본, 유효구인배율 22년래 최고

- 지난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5월 중 유효구인배율¹⁾이 전월 대비 0.01p 상승한 1.09배로 집계됐다고 발표
 - 이는 1992년 6월의 1.10배 이후 가장 높은 결과
 - 5월까지 18개월 연속 상승, 7개월째 1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조선, 식료품 등의 제조업 인력 부족이 심한 것으로 알려짐
-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5월 중 유효구인배율이 약 22년 중 최고를 기록
- 한편, 유효구인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이치현으로 1.57배, 가장 낮은 곳은 오키나와로 0.63배로 집계된 바 있음

1) 유효구인배율은 구인자 수가 구직자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로써, 유효구인배율 1.09배는 일자리가 구직자의 1.09배라는 의미임.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고프로, 나스닥 상장 첫날 30% 폭등

- 지난 26일 CNN머니는 미국 웨어러블 카메라 전문 제조업체인 고프로(GoPro)가 나스닥 상장 첫날 30% 이상 폭등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보도
 - 공모가가 주당 24달러였으나 이날 장중 30% 넘게 상승하며 31달러 이상에 거래
- 고프로의 HERO 카메라 시리즈는 2013년 미국 캠코더 시장 전체의 45%를 차지, 지난해 매출이 4배 증가하며 9억 86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
- 한편, 고프로는 지난 2012년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제조공장으로 유명한 중국의 팍스콘으로부터 2억 달러를 투자 받은 바 있음
 - 당시 고프로의 시가총액은 22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됨

2) GM, 다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쉐보레 크루즈 판매중단

- 지난 26일 WSJ은 GM이 북미지역 자동차 딜러상들에 약 3만3천대의 2014년형 쉐보레 크루즈 신차 및 중고차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
 - 이것은 차에 장착된 일본 다카다 생산 에어백 폭발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
- 현재까지는 에어백 관련 문제로 인한 차량 충돌 사고나 사상자는 없지만, GM은 에어백 문제가 또 다른 리콜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, 판매 중단을 결정
- 한편, 세계 2위 자동차 에어백 제조업체 다카타의 에어백 결함으로 현재 일본 자동차 메이커 혼다, 닛산, 도요타 등을 포함해 전세계 자동차 업계가 잇단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